

#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저지 대책모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 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 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YMCA전국연맹 등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담당

발신 :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저지 대책모임

제목 : [취재요청서]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현주소와 해법에 관한 긴급 토론회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날짜 : 2011. 1. 25(화)

문의 : 전누리 (언론담당/010-3297-9803)

##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현주소와 해법에 관한 긴급 토론회

### "교과부 초중등교육법령 개정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 때: 2011년 1월 26일(수) 오후 2시

□ 곳: 국회 의원회관 103호

□ 주최: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 저지 대책모임/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 주관: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 저지 대책모임

1. 안녕하십니까?

2. 교과부의 시행령 개악에 맞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저지 대책모임'(이하 대책모임)을 구성하고, 정부중합청사 릴레이 1인 시위, 청소년성토타대회 등의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3. 지난 취재요청서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대책모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인권과 학교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토론회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26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3호에서 열릴 이 토론회는 대책모임뿐만 아니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 그리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사회당 등 진보정당들이 함께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4. 이 자리에는 개정안의 위헌성과 학생인권/교육자치의 훼손을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해보는 발제와 학교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가 바라보는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 이슈가 되었던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등의 문제도 짚어보기 위해 여교사가 바라보고 있는 교육현장의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한 토론역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5.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구성>

##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현주소와 해법에 관한 긴급 토론회 "교과부 초중등교육법령 개정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 □ 개최 목적

1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문화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보호, 학내질서 유지를 위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가 제한되며 △학생징계수단으로 '출석정지' 조치가 신설되고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다른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과부 발의)에 따르면, 학칙에 대한 교육감 인가권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민주주의와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한편, 학생인권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몇몇 교육청에서 제정 또는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와의 상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 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인권과 학교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토론회 구성

사회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 앞뜰이 마당 - 지금 학교에선! (14:00~14:20)

- 학생인권의 현주소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관한 학생들 발언

■ 기초발제 (14:20~15:00)

□ 기초 발제 1

: 교과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개정안의 위헌성, 학생인권/교육자치 훼손 문제를 중심으로

○ 발제자 : 한상희(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및생활지도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초 발제 2

: 교과부안, 교사와 교육을 위한 것인가?

- 학교 현실에서 바라본 교과부안의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을 중심으로

○ 발제자 : 최형규(수원 유신고 교사)

■ 토론 (15:00~15:20)

1) 여교사가 바라본 교육현장과 대안적 방향

○ 토론자 : 김수현(광명 충현고 교사)

2) 학부모가 바라본 교육현장과 대책

○ 토론자 : 변춘희(어린이책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토론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 휴식(10분)

■ 종합토론 (15:30~16:30)

- 방청객 질의와 토론